

## 논평 : 원훈의 통곡 : 역사적 담론으로서의 제주 무속

문        우        표\*

본 논문은 기본시각과 해석면에서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심방 곧 무당을 일종의 연출가(producer) 내지 연기자(art performer)로 전제하고, 심방의 꿈을 매개로 그 꿈에 대하여 심방과 관객이 해석을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을 중시하며, 또한 그러한 해석에 의하여 연행(演行)되는 굿의 전체과정을 역사적 담론(historical discourse)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둘째 제주도의 영개울림 및 질침굿이 대한민국 건국초기에 있었던 4.3사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역사의식이 굿에 의하여 재구성되는 작업임을 보여 준다. 즉 해석의 차원에서 볼 때, 이 두 형태의 굿은 국가권력에 의해 양민에게 자행된 폭력의 경험에 대한 피해당사자들의 역사구성 작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의 역사나 현실적 경험이 국가체제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소의 당하거나 존재자체를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금지된 공간(tabooed space)의 종교나 예술의 언어를 빌어서 채워지는 것은 흔히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와 예술에 대한 정치적, 상징적 맥락에서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제주무속이 무당의 연기에 의하여 시도되는 역사의 "현재화"작업, 즉 잊혀지기를 강요당하는 민중의 역사 또는 존재하지 않는듯이 취급되어 온 과거를 "현재화"하는 작업이라고 보고 그 의미는 국가권력, 공식적 체제 및 중심부에 대한 민중의 원한과 반감, 방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교성(religiosity)과 심리적 측면 즉 client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무당의 특출한 종교적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던 종래의 연구들로부터 벗어나 역사의 재구성이라는 종교외적 요소를 강조한 점에서 참신한 시도이다. 또한 이 연구는 역사와 사회 및 상징의 결합을 통하여 종교외적인 discourse를 엮어보는 최신의 종교인류학계의 이론들을 처음으로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무속의 연구에 적용시켜본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깊다.

이상의 논문의 의의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논의를 좀더 발전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다음 몇가지 질문 제기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곳의 기본구조는 한국의 타지역의 일반적인 곳과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 즉 현실의 질곡, 개인적 고통과 원한 등의 근원을 제삼의 대상물(조상, 원혼, 비극적 경험, 역사, 국가 등)에서 찾고, 당사자와 그 대상물 간의 관계를 의례를 통하여 재조정 함으로서 어떤 종류의 “해결”을 시도한다는 면에서 이것은 다른데와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떤 해결”이 제주도에서는 대체적 담론(counter discourse)을 구성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이 경우 이 “대체적 담론”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그러한 담론의 궁극적 지향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로 그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반란이나 혁명을 지향하는 것인가 아니면 화해 및 순용을 위한 담론인가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전복의 예술형태”(art form of subversion)라는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반란의 느낌을 시사하고 있지만 한편 끝 이어서 “관심은 무속적 담론이 무엇인가라기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치유능력에 있다.”라고 함으로서 그것이 화해와 순용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필자의 주장대로 제주무속을 대체적 담론의 한 형태로 보고자 할 경우 여기서 필자가 “치유”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가 현실적 고통에 대한 원한과 좌절 등에 대한 개인적 해답이 불가능 할때 의례를 통하여 대안적인 해명의 기제를 제공해 줌으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그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현실생활 속으로 몰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반란이나 혁명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를 세속적 차원에서 극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치유

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굿의 이유와 목적을 1)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체제에 대항하여 그것에 의하여 거부되는 또 하나의 역사를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2) 국가에 의한 공식적 역사영역에 자신의 역사해석이 수용(受容)되는, 다시말해 주도적 이데올로기에 편입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질문은 제주무속 즉 영개울림과 질침굿을 역사적 담론이라고 정의할 경우, 이 담론의 producer를 과연 누구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시말해 그것이 무당인가, 아니면 고객 즉 억압된 민중인가, 아니면 제삼자 즉 그러한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고 해석을 내리는 인류학자인가? 굿이 그 참여자들이나 관람자, 연출자들에게 대체적 담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려면 그 이전에 이 점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의문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그 주제나 방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무속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한다.